

‘이/가’를 가진 제1 조사구와 제2 조사구의⁴⁵⁾ 의미 관계를 ‘전체-부분(예 (56가)), 부류-성원(예, 시계가 엘진이 비싸다), 유형-표시(예, 해가 뜨는 해가 멋있다), 총계-수량(예, (56나)), 피영향자-영향자(예, 내가 아버님이 아프시다)’와 같은 대소 관계(Macro-Micro Relation)로 유형화한 양인석(1972)의 대소 관계 유형에는 이상하게도 (56라-바)와 같은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소 관계라는 것이 경험적인 자료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이 아님을 뜻한다. 대소 관계설은 자료를 극히 제한하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것은 적어도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서술절 분석도 이와 다름없다. 관련 예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한다. 가령 (56나)에서 ‘고민이 많다’는 서술절인가? 서술절의 성격이 명확하지 정의되지 않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서술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고민이 많다’는 처소 논항(혹은 소유주 논항)을 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처소 논항이 제1 조사구와 관련되므로, 제1 조사구를 서술절 속의 논항으로 끌어오면 그것은 이미 문장 전체이므로 서술절은 문장의 부분이 되지 않는다.

(56다)의 ‘음악이 좋다’나 (56라)의 ‘읽기가 어렵다’ 부분도 서술절(혹은 “문장 술어”)이라 하기 어렵다. 서술어의 논항이 온전치 못한 것이다. ‘좋다’는 경험주역과 대상역을 요구하는데, ‘꽃이 좋다’에는 대상역밖에 없고, ‘읽기가 어렵다’에서는 ‘읽다’의 대상역 논항이 없다. 서술절이 온전한 논항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제1 조사구를 서술절 속으로 가져오면 논항 관계는 충족되나 서술절 해석은 이미 효력을 잃게 된다.

서술절이 그 자체에서 논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인정하자마자, 학교 문법[1985, 1996]은 보어 구문과 서술절 구문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아이가 어른이 되다’나 ‘그가 어른이 아니다’에서 두 ‘어른이’ 성분은 보어로 취급되는 것인데, 제2 조사구와 서술어를 합하여, 논항을 갖추지 못한 서술절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서술절 분석의 결함은 또한 중목적어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설명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57) 가. 철수가 영희를 돈을 주었다.

나. 영희가 철수를 친구를 초대하였다.

다. 철수가 [영희를 [돈을 주었다]]

45) 이를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은 조사구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조사구를 다시 격조사구나 보조사구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조사구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이름이다.

(57가, 나)는 전형적인 중주어문이다. 이들은 ‘이/가’ 중출 구성이 아니므로, 서술절 분석이 이들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56)의 예들과 이들은 동조사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동질적인 원리에 의하여 해석될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57가)를 (57다)와 같이 분석하여 ‘돈을 주었다’란 서술절이 ‘영희를’이란 목적어를 다시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다. ‘돈을 주었다’는 전혀 절이 아니다.

따라서 서술절 분석은 절대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진지한 문법 논의가 그것을 토대로 다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서술절 분석이 가지는 의의도 잘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어를 국어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문장이 자기 안에 다른 절을 가지는 일은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며 국어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구어에도 국어와 같이 중주어 현상이 광범하게 존재해야 한다.⁴⁶⁾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다.

중주어문을 초점 구성으로 보려는 논의도 적지 않다. 김영희(1978/1988)도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입장이며,⁴⁷⁾ 윤혜석[Yoon] (1987), 김귀화(1988/1994), 윤종렬(1990) 등도 그러한 입장이다. 김영희(1978/1988:35)에서의 언급을 여기에 가져와 보기로 한다.

(58) 김영희(1978/1988:35)에서의 ‘이/가’

정보 초점을 표시하는 초점 표시(focus marker)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가’는 순수한 통사 관계의 표지로서 주어 되기 과정에 도입되어 문법적 주어를 표시할 뿐,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가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질문법(question test)’이라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주제나 초점 성분을 가려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도 질문법이다. 그

46) 김영희(1978/1988:32)에서는 영어에도 겹주어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예 스페르센(1937)의 분리 주어(Split Subject)를 그 하나의 예로 들고 있고, there 구문의 예를 다른 하나의 예로 들고 있다. ‘She seems to run./This was considered a lie./She is sure to notice it.’와 같은 예가 분리 주어의 예이다. there에서는 수의 일치를 보이는 것이 동사 뒤에 있는 명사구이므로, there는 형식 주어이고 실질 주어는 따로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어처럼 중주어 구성이 광범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47) 김영희(1978/1988:35)에서는 ‘이/가’를 “정보 초점을 표시하는 초점 표시(focus marker)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가’는 순수한 통사 관계의 표지로서 주어 되기 과정에 도입되어 문법적 주어를 표시할 뿐,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러나 질문법이 주제나 초점을 가려내는 유효한 도구가 된다는 것은, 질문 자체가 이미 정보 구조를 가지는 구성임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실제의 질문법에 고려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59) 가. 화자 A: 누가 키가 크냐?
 나. 화자 B: 철수가 키가 크다.
 (60) 가. 화자 A: 철수가 무엇이 크냐?
 나. 화자 B: 철수가 키가 크다.
 (61) 가. 화자 A: 철수가 키가 어떠냐?
 나. 화자 B: 철수가 키가 크다.
 (62) 가. 화자 A: 철수가 누구를 만났느냐?
 나. 화자 B: 철수가 영화를 만났다.

(59가)가 주어질 때, (59나)에서 신정보(New Information)가 되는 것은 ‘철수’이다. (59나)에서 ‘철수’가 새로운 정보임을 나타내는 것이 과연 ‘이/가’인가 물을 수 있다. 담화상에서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가’라면, 원리적으로 새로운 정보에는 모두 ‘이/가’가 쓰여야 한다. 그러나 (61나)의 ‘크다’나 (62나)의 ‘영화’에는 그것이 새로운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가’가 쓰이지 않았다. 적어도 ‘이/가’는 새로운 정보 표지가 아니다. 초점을 새로운 정보를 가진 성분이라고 한다면, ‘이/가’는 초점 표지도 아니다. 김영희(1978/1988)의 (58)의 결론은 이렇게 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가’는 “초점 표시(focus marker)”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통사 관계의 표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흔히 ‘누가 키가 크냐?’와 같은 질문에서 ‘키가 크다’를 구정보 혹은 주어진 정보 혹은 알려진 정보로 취급한다. 담화 장면이 ‘화자, 청자, 철수, 영화’ 세 사람이 있다고 하여 보자. 아무런 선행 담화 없이 화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하여 보자.

- (63) 가. 화자 A: 누가 키가 크냐?
 나. 화자 A: 누가 키가 크냐?
 다. 화자 A: 누가 무엇이 크냐?
 라. 화자 A: 누가 무엇이 크냐?
 마. 화자 A: 누가 무엇이 크냐?

(63가)와 같은 경우, '키가 크다'는 구정보인가? '철수'와 '영희'가 발화 장면 속에 있으므로 그것은 구정보라고 할지 모른다. 그들은 모두 작은 사람들이라 하여 보자. 키가 큰 것은 상황 속에 절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의 키가 문제되는 것이 순수히 화자의 질문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보자. (63가)에서 '키가 크다'는 구정보라거나 주어진 정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다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화자는 다시 (63나)와 같이도 물을 수 있다. '누가'를 물으면서 동시에 '키가'에 강세를 두는 경우이다. '누가'도 초점이고 '키가'도 초점이라고 해야 한다. (63다)는 '누구'와 '무엇'을 동시에 묻는 것이다. 둘 다 다 초점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누가'에 강세를 둘 수 있다. 의문사의 논리와 강세의 논리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키가 크냐?'와 같은 구문은 초점이나 주제를 가려내기 위한 구문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문제의 성격을 지닌다. 그 자체의 성격이 분명해져야 한다.

(63가)의 경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철수'와 '영희' 두 사람뿐일 때, 그 '누가'는 완전히 비한정적인가? 그렇지 않다. 누군지는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대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인물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64) 가.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한 임금님이*임금님은 살고 있었습니다.
 나.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한 임금님이 공주가 있었습니다.
 다.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한 임금님은 공주가 있었습니다.

(64)는 담화의 서두 문장을 예들어 보인 것이다. (64가-다)와 같은 문장 앞에 주어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는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64가-다)의 화자가 옛날 이야기를 하려면 흔히 하는 버릇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논외로 하자. 그 경우 '한 임금님은'은 부적격하다. 어떤 인물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다른 인물과 대조시켜 도입하는 것이 부적격하기 때문이다. 거의 이것과 같은 정도의 부적격성이 (64나)와 (64다)에서도 검출된다. 주목되는 것은 (64나)이다. (64나)에서 문제의 부분을 다시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기로 한다.

- (65) 가. 그 임금님이 공주가 있었습니다.
 나. 여러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임금님이 공주가 있었습니다.
 다. ”한 임금님이 공주가 있었습니다.
 라. ”웬 임금님이 공주가 있었습니다.

(65가)는 제1 명사구 앞에 지시사 ‘그’를 놓아 본 것이다. (65다)와 같은 예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성립이 자연스럽다. ‘그 임금님’은 신정보인가? ‘그’를 가진 성분이 어떻게 신정보일 수 있는가? ‘그 임금님’은 절대로 신정보가 아니다. (65나)에서도 둘째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아주 자연스럽다. ‘(그 중) 한 임금님’이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65라)와 같이 ‘임금님’이 한정적이 아닐 때 그 성립은 어려워진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66) 가. 담화 제1 문장: 철수가/철수는 왔다.

나. 담화 제2 문장: 철수가/철수는 키가 크다.

(66가, 나)가 이어지는 담화라고 하여 보자. (66가)에서 ‘은/는’의 쓰임이 이상을 보일 뿐, (66나)에 ‘이/가’가 쓰여도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제1 문장에 쓰인 요소가 제2 문장에 쓰일 때 반드시 ‘은/는’이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66나)에서 ‘철수가’는 새로운 정보인가? 그렇지 않다.⁴⁹⁾ 그렇다면 (66나)에서 ‘철수가’를 초점으로 보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잘못된 것이다.

중주어 구성에서 제1 조사구를 초점 성분이라 하려면 적어도 그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새로운 정보로서의 초점 외의 다른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임흥빈(1972) 이후 서술절이라 하는 구성에서 제1 조사구를 ‘이/가’-주제로 보아 왔다. 아직 이것을 포기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가’-주제는 배타적 대립이라는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 특성을 지니고 주제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표지인 것이다. 국어에는 서술절 구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주제를 가진 문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정적이라는 것을 아주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이/가’-주제는 한정적인 대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동일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자매 항목들을 배타적으로 제외한다는 의미가 작용한다.

‘이/가’를 주격 조사로 인식하고, ‘을/를’을 대격 조사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지배적인 문법 인식의 하나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이론을 국어에 새롭게 적용하려는 논의일수록 이러한 편향성을 보여 왔다. 그런데 그 동안 국어에는 매

48) 이정민(1992)에 의하면 이는 “한정성의 육박”이란 개념이다.

49) 이효상(1987)이나 이인영(1997)에서는 담화 분석적인 입장에서 국어의 주제(이인영(1997)에서는 ‘화제’)이다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효상(1987)에 의하면 ‘은/는’은 주제 표지로서 ‘주제 전이’를 나타낸다고 한다.

변 새로운 이론이 적용되어 왔다. 따라서 중주어 현상이나 증목적어 현상은 항상 ‘이/가’는 주격 조사이며, ‘을/를’은 대격 조사라는 전제 아래 문제 해결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국어에서 모든 ‘이/가’가 주격 조사이며, 모든 ‘을/를’이 대격 조사라는 인식은 아무 데서도 보증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부정의 ‘-지’ 뒤에 나타나는 ‘이/가’나 ‘을/를’을 격조사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을 특히 강하게 보여 온 것도 그 같은 인식을 반영한다. ‘-지’ 뒤에 나타나는 조사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한 이홍배(1970) 이후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의 논의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전병쾌(1984)에서도 그렇고, 최근에는 강명윤(1992)에서도 그렇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67) 가. 꽃이 예쁘지가 않다.

나. 꽃이 예쁘지를 않다.

다. *꽃이 예쁘지를 않는다.

(68) 가. *철수가 학교에 가지가 않는다.

나. 차가 가지가 않는다.

다. 차가 가지를 않는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는 선행 용언의 품사에 따라 그 품사적 성격이 결정된다.⁵⁰⁾ 따라서 (67가)의 ‘않다’도 형용사이며, (67나)의 ‘않다’도 형용사이다. 선문미 형태를 취하는 방식이 형용사와 완전히 같다. (67다)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67나)의 ‘을/를’이 대격 조사라면, 형용사문에 대격이 쓰인 것이 된다. 그러나 국어에 형용사가 대격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적어도 (67나)의 ‘을/를’은 대격 조사가 아니다. 이번에는 (68)을 보기로 하자. ‘-지’ 뒤에 ‘이/가’를 가진 (68나)는 이상이 없으나, (68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가’가 격조사라면, 같은 격조사가 동일한 동사의 같은 구성에서 차별을 보일 리가 없다. (67가), (68나)의 ‘-지’ 뒤에 쓰인 ‘이/가’도 격조사는 아니다. 이들을 격조사로 보는 입장은 ‘-지’를 명사화소 ‘-기’로 보는 견해와 맞물려 있다. 명사화소 ‘-기’가 부정소 앞에서 ‘-지’로 변한다는 규칙을 세운 것은 송석중(1967)이나 성립할 수 없

50) ‘너는 자꾸만 어제 그가 왔었다고 하지만, 어제는 그가 집에 왔었지 않다’나 ‘어제는 철수가 집에 가겠었지가 않았다’와 같은 예를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려는 문법가들이 많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아니하다’의 성격은 선행 용언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 외에, 선행 용언 구성의 의미론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 된다.

는 것이다. 구개음화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없고, 명사절의 논리도 이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67나)와 같은 예에서 ‘않다’를 형용사로 보면 그것이 명사절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67)이나 (68)의 ‘-지’ 뒤에 나타나는 ‘이/가’와 ‘을/를’은 절대로 격조사가 아니다. 그것은 순수히 통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에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진 의미론적 존재이다. 필자는 임흥빈(1972, 1974, 1987) 등에서 그것을 ‘이/가’-주제나 ‘을/를’-주제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⁵¹⁾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69) 가. 영화가 예쁘기가 양귀비 뺨친다.
나. 철수가 가기는 아주 값다.

(69가)의 ‘예쁘기’는 ‘예쁘기’가 ‘이/가’-주제화된 것이며,⁵²⁾ (69나)의 ‘가기’는 ‘가’가 ‘은/는’ 주제화된 것이다. 강명운(1988:12-20/1992:11-16)에 의하면, (69나)와 같은 구성은 동사구-초점(VP-focus) 구성이다.⁵³⁾ 그러나 초점이라는 것을 신정보를 나타내는 성분이라고 하여 보자. (69가)에서 ‘예쁘기’라는 것이 신정보인가?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청자는 그 말만 듣고는 더 알게 된 것이 없다. ‘양귀비 뺨친다’를 듣고야 얼마나 예쁘지를 알게 된다. 알게 된 것이 있다. 무엇이 신정보인가? ‘양귀비 뺨친다’가 신정보이다. 신정보가 초점이라면 그것이 초점이다. (69나)에서도 ‘가기’만 듣고는 청자가 더 알게 된 것이 없다. ‘아주 값다’까지 들어야 그가 간 것이 임시로 간 것인지 영원히 떠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철수가)가기’가 초점인가? 그것은 절대로 신정보가 아니므로, 초점일 수 없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51) 이광호(1988)에서는 대격 주제와 같은 것도 설정하였다. 동사에 의하여 대격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는 ‘을/를’-주제를 말한다. 그러나 동사에 의한 격 부여가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52) ‘주제화’란 용어는 술어 사용의 편의상 도입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변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53) 휘트먼[Whitman](1982)은 국어의 예와 평행적인 일본어의 예를 동사-초점(V-focus) 구성으로 보았다고 한다. 강명운(1992:14) 참조. 강명운(1988/1992)는 동사구 전체가 문제되는 것이라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문장 전체와 관련된다. 특히 문제로 부각되는 성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때로 용언만이 문제되는 일이 있는 것이다.

- (70) 가. 학생은 둘이 선생님은 세 분에게 선물은 넷을 드렸다.
 나. 학생이 둘이 선생님을 세 분에게 선물은 넷을 드렸다.
- (71) 가. [학생은 둘]-이 [선생님은 세 분]-에게 [선물은 넷]-을 드렸다.
 나. [학생이 둘]-이 [선생님을 세 분]-에게 [선물을 넷]-을 드렸다.
- (72) 가. ^{??}[무슨 학생이 둘]-이 왔다.
 나. ^{??}학생이 [무슨 선생님을 세 분]을 도왔다.
 다. [학생으로 말하면 둘]-이 [선생님으로 말하면 세 분]에게 선물은 넷을 드렸다.

(70가, 나)가 국어에서 문법적인 문장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70가, 나)는 (71가, 나)와 같이 분석된다. 달리 분석할 방법이 없다. (71가, 나)에서 괄호 속에 든 ‘은/는’이나 ‘이/가’나 ‘을/를’ 성분은 동일 성분 속의 주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정성이라는 것을 넓은 의미로 받아들일 때 괄호 속에 든 ‘은/는’이나 ‘이/가’나 ‘을/를’ 성분은 한정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언급 대상성(aboutness) 조건도 충족시킬 수 있다. (72가, 나)는 한정성이 아주 약할 때 성분 주제 구성의 성립이 의심스러움을 보인 것이며, (72다)는 성분 주제에도 주제 도입 표현이 쓰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56다)를 다시 여기에 가져오기로 한다. 관련 예를 덧붙이기로 한다.

- (56) 다. 값이 백 원이 알맞다.
 다. [값이 백 원]이 알맞다.
 다. [값이 백 원]이 그 물건에 알맞다.

(56다)의 ‘알맞다’를 김광해(1983)에서는 계사의 일종으로 보았다. 그러나 (56다)에는 ‘이/가’를 가진 성분이 둘이 있다는 점만이 계사 구성적일 뿐, ‘알맞다’를 계사의 일종으로 보는 것은 국어적인 직관에 크게 어긋난다.⁵⁴⁾ (56다)와 같은 구성만을 중심으로 ‘알맞다’를 두 자리 서술어로 볼 수도 없는 일이다. ‘알맞다’에는 ‘이/가’ 성분 외에도 (56다)와 같이 ‘에’를 가진 논항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성이 가진 어려움은 ‘값이 백 원이’의 ‘값이’를 성분 주제로 봄으로써 논리적인 결함 없이 해결될 수 있다.⁵⁵⁾

성분 주제라는 국어에 가능하다고 해 보자. 우리는 주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편견에

54) 김광해(1983)에서는 ‘알맞다’뿐 아니라, ‘아니다, 되다, 나가다(값이 백 원이 나간다), 틀림없다, 한가지다’ 등도 계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55)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홍빈(1996)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서 벗어날 수 있다.

(73) 가. 주제는 한 문장에 많아야 하나뿐이다.

나. 주제는 문두(文頭)에 나타난다.

다. 국어의 주제 표지는 ‘은/는’뿐이다.

라. 문종의 ‘은/는’ 성분은 주제가 아니라 대조(Contrast)를 나타내는 것이다.

(73가)는 인구어적인 주제론에서 온 편견이다. 인구어에는 국어와 같이 다양한 주제 표지가 없다. 한 문장에는 많아야 한 성분 정도가 특수한 표현법에 의하여 주제로 도입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어는 그렇지 않다. 제1 주제가 도입되었을 때 그것에서 파생되는 제2 주제를 상정할 수 있고, 또 그에서 파생되는 제3, 제4 등의 다른 주제를 상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프라그 학파가 전달 강도(CD=Communicative Dynamism)란 개념을 도입하여 전달 강도가 가장 낮은 성분을 주제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은 주제를 하나로만 고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주제나 초점을 가려내기 위한 질문법이 가지는 의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질문의 대상은 대체로 언제나 하나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국어의 경우에는 다양한 표지가 그 자체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주제를 도입한다. 주제는 전달 강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표현 목적에 지배를 받는다. 성분 주제를 인정하면 (73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한 문장에 하나 이상의 주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구노[Kuno] (1973)적인 편견으로 여겨지는 (73나)도 유지될 수 없고 (73라)도 유지될 수 없다. (70)-(71)의 괄호 속의 ‘이/가’나 ‘을/를’이 성분 주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73다)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56마)를 보기로 하자.

(56) 마. 나는 음악이 좋다.

(56마)의 ‘좋다’는 강영세(1986)에서 ‘타동 형용사(transitive adjective)’이다. 이익환(1987)은 형용사를 자동적인 것과 타동적인 것으로 나누었는데, (56마)의 ‘좋다’는 타동적인 것에 속한다. ‘타동 형용사’와 다른 것이 아니다. 강명윤(1988)에서도 ‘좋다’는 ‘타동 형용사’이다. 그러나 통사적인 차원에서 타동적 형용사 범주를 상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국어에서 목적어가 ‘이/가’로 표시된다는 것도 그 유례가 없

는 것이다. (56)에서 ‘음악이’라는 성분이 ‘좋다’의 대상역과 관련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상역이란 의미역(θ-role)이 통사적으로 반드시 목적어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강영세(1986)에서 ‘음악이’는 목적어이나 강명윤(1988:34/1992:25)에서는 보어이다. 내용상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문장 성분의 확정에서 강영세(1986)에서 주목된 것은 주체 존대와 재귀사 관련 현상이다.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한다.

(74) 가. 김 선생님이 음악이 좋으시다.

나. 철수가 영희가 자기 누이 동생보다 좋다.

다. *나는 아버님이 좋으시다.(‘아버님’을 좋아하는 대상으로 높일 때)

라. *나는 아버님께서 좋다.(‘아버님’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일 때)

(74가)에서 ‘-(으)시-’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김 선생님’이다. 강영세(1986)에 전제된 바와 같이 ‘-(으)시-’가 높이는 것이 반드시 주어 대상이라면, (74가)에서 주어는 ‘김 선생님’이다. 그러나 ‘-(으)시-’가 높이는 것이 반드시 주어 대상은 아니다.⁵⁶⁾ 이는 (40)과 관련해서 보인 바와 같다. ‘-(으)시-’의 쓰임은 어느 정도 의미론에 지배를 받는 현상이다. (74라)가 부적격한 것은 ‘아버님’이 대상역 논항이기 때문이다. (74라)에 보인 바와 같이 대상역을 가진 논항에는 ‘께서’도 쓰일 수 없다. 그것은 (74마)에 ‘께서’가 쓰일 수 없는 것과 같다.

(74나)에서 재귀사 ‘자기’의 선행사가 되는 것은 주어인 ‘철수’이다. 여기서도 재귀사의 선행사가 되는 것이 어느 경우에도 주어라면 (74나)에서 주어가 되는 것은 ‘철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귀사의 선행사가 되는 것도 반드시 주어만은 아니다. 재귀사의 쓰임은 상당한 정도로 의미론에 지배를 받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강명윤(1988:34/1992:25), 김세중(1994), 이홍식(1996) 등에서 새롭게 주목된 예는 ‘싫다’이다. 다시 몇 가지 예를 보이기로 한다.

(75) 가. 나는 영희가 싫다.

나. 나는 어둠이 싫다.

다. 나는 어둠이 두렵다.

라. 나는 자동차 매연이 싫다.

56)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85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57)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87나)를 참고하기 바란다.

마. *나는 맑은 공기가 싫다.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75가)와 같은 예를 증시하는 논의들은 (75가)에서 ‘싫다’가 서술하는 것이 ‘영희’가 아니라 ‘나’인 것으로 본다. ‘싫은 것’은 ‘영희가’ 아니라 ‘나’의 심리적 작용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75나)와 같은 예를 보자. ‘어둠’ 자체에는 싫은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오직 ‘나’의 심리적인 작용만이 ‘싫은 것’을 느끼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 공연히 싫어하는 경우이다. 심리적 상태라는 것이 대상과 관계 없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상 자체의 속성 때문에 관련 심리 상태가 유발되는 것이다. (75다)에서도 ‘어둠’이 어떤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75라)가 자연스럽고 (75마)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물론 (75마)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변덕의 문제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76) 가. 나는 영희가 혐오스럽다.

나. 나는 영희가 밉다.

(76가, 나)의 ‘혐오스럽다, 밉다’는 ‘싫다’와 거의 의미 특성을 같이한다. 여기서도 ‘영희’는 완전히 순진 무구하고 예쁜데, ‘나’의 심리 상태만이 ‘혐오스러움’이나 ‘미움’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도 만의 하나 결함이 있고 티끌이 있고, 극히 부분적으로라도 나의 미움이나 혐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주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77) 가. 나에게서는 어둠이 싫다.

나. *나는 영희에게 싫다.(‘영희’가 내가 싫어하는 대상일 때)

다. 철수가/*철수에게 학교에 간다.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제1 조사구는 (77가)에서와 같이 ‘나에게는’과 같이 바뀔 수 있다. 국어의 어떠한 주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없다. (77다)는 그러한 관련을 보인 것이다.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제2 조사구를 주어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주어와 동질성을 보인다. (77나)는 제2 조사구에 ‘에게’를 쓸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제1 조사구가 의미론적으로는 비록 주어적인 기능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문법적인 관점에서 제1 조사구는 다른 주어가 절대로 가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 조사구를 주어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3.4. 통사론 연구의 반성과 전망

이제까지 우리는 국어에 대한 통사적 논의에서 결코 드물지 않게 목격되는 문제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결합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데 힘을 모았다. 문제의 한 가지 측면은 어휘 파괴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의 측면은 범주 설정의 측면이다.

20세기 언어학이 어휘 파괴의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결합을 보인다는 사실은 촘스키(1994)에 제시된 (2)와 같은 구조가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this를 th-와 -is로 분석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인 변명을 두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형태 분석의 극히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형태 분석이란 적어도 더 나누어 의미를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this를 th-와 -is로 분석하는 것은 음운 분석에 속하는 절차이다. 그것은 국어의 ‘그’를 ‘ㄱ’과 ‘ㅡ’로 분석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저’를 ‘ㅈ’과 ‘ㄴ’로 분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통사적 분석은커녕 형태적 분석도 되지 못한다. 사동사를 의미 원소로 나누는 어휘 해체에도 어휘 파괴가 들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려니와, 사동이나 피동의 접미사를 독립된 통사 단위처럼 취급하는 방식에도 어휘 파괴는 숨어 있는 것이다.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를 ‘아니’와 ‘하다’로 나누어 기술하는 어떠한 문법도 어휘 파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진지한 논의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휘 파괴가 시도된다. 그 동기는 국어를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서이다. 어휘를 해체하여 의미 원소로 분해하면 어휘는 특이성, 고유성을 잃고, 보편성을 띠게 된다. 무슨 이론이든 잘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이 어휘 해체를 하는 기본적인 동기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에서 국어는 국어가 아닌 것이 된다. 국어는 영어나 다른 인구어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이 된다. 분명 우리는 방법론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어를 서구어처럼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범주 설정의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결정사구 가설의 허구성을 지적하였다. 종래의 명사구를 결정사구(DP)라는 새로운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생성 문법의 최근의 경향이기는 하나,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영어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격 사실을 설

명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는 것이다. 성분과 성분과의 관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이러한 범주를 설정하고 마음편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우리는 국어에 일치소(AGR) 범주를 설정하는 견해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으)시-’가 정확하게 주어 존재하는 것도 아니려니와 그것이 정확하게 주어를 존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은 주어 대상을 높이는 것이지 주어와의 형식적인 일치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는 아닌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어에 순수히 형식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형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국어 문법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국어의 문법 형태는 고유한 기능 의미적 특성을 가지는 통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형태론적 동기에 의하여 이동할 필요가 없다. 통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 최소주의 문법에서와 같이 ‘-(으)시-’가 다른 요소에 의하여 점검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으)시-’는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에 의하여 문장에 등장하는 것이다.

서술절 혹은 문장 술어 분석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범주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무런 절 표지 없이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고 가정하자마자 그것은 국어 통사론의 가장 일반적인 원리를 파괴한다. 서술절만이 절 표지를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기술은 임의성을 벗어날 수 없다. 다른 절과 달리 서술절은 품사 상당의 절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결함으로 지적되었다. ‘서술절’이란 말에서 ‘서술’이란 말이 흔히 듣는 말이기 때문에 혹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서술절’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주이다. 그것은 서술어의 품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 절의 이름으로 ‘동사절’이나 ‘형용사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츨스키(1994)는 나상(裸狀) 구구조(Bare Phrase Structure)와 같은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통사론이나 연산 체계에서 범주 표시도 하지 않고 통사적 층위 표시도 하지 않는 문법을 말한다. 그에서는 엑스-바 이론도 거의 다 제거된다(츨스키(1994:12) 참조). 이에 대한 양동휘(1996:9)에서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78) 가. 범주적 절점의 정보는 어휘 항목의 어휘 자질 복합체 중에서 형식 자질인 범주 자질에 있다. (양동휘(1996:9) 참조)

나. 최대 투사 범주의 정보는 구조적 형상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양동휘(1996:9) 참조)

다. 중간 투사 범주의 정보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함이 논증되고 있다. (양동휘(1996:9) 참조)

(78)은 촘스키(1994, 1995)이나 그가 선도해 온 20세기의 언어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의 목표는 분명히 문장을 생성하는 데 있는 것이다. 문장을 생성하는 절차는 어휘 항목과 어휘 항목을 연결하면 그만이다. 거기에 특별히 그 어휘 항목의 범주가 표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특별히 통사적 층위가 표시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장만 이루어지면 그만이다.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 “나는 지금 ‘명사구’를 말한다.”와 같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범주와 층위를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면, 나상 구구조로써는 효과적인 통사적 기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문법은 문장을 생성하기만 하면 족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문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 자체를 입력해서도 문장은 생성시킬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사적 기술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밀한 통사 기술이 범주나 층위의 구별 없이 행해질 수 있다고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20세기의 언어학이 결함을 가진다면 그것은 생성 중심적 문법을 최선의 것으로 보는 데 그 근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문법 현상에 대한 정밀한 기술이지, 편법적인 생성이 아니다.

통사론 연구에는 이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 당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동의 문제도 검토해 보려고 하였으나, 필자의 시간이나 지면이나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참고 문헌

- 간행위원회 편(1995), 한일 어학 논총 : 남학 이종철선생 회갑기념 논총, 국학자료원.
- 강명윤(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Ph. D. dissertation, MIT.
- 강명윤(1990), "GB 이론과 한국어 연구," 주시경학보 6, 주시경연구소.
- 강명윤(1992), 한국어 통사론의 재문제, 한신문화사.
- 강명윤(1995), "현대 언어학 이론에 기초한 국어 통사론 연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창과(創科)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 강명윤(1997), "한국어의 형태론적 피/사동 현상의 소형 구절구조이론적 접근," 어학연구 33: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강영세(1986), *Korean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한신문화사.
- 고영근(1974), 국어 접미사의 연구, 광문사.
- 고영근(1975), "현대 국어의 어말 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응용언어학 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고영근(1978), "형태소 분석의 한계," 언어학 3, 한국언어학회.
- 고영근(1983), 국어 문법의 연구 : 그 어제와 오늘, 탑출판사.
- 고영근(1985), "문법론의 연구," 고영근 편(1985).
- 고영근 편(1985), 국어학 연구사 : 흐름과 동향, 학연사.
-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 서술과 문법 체계, 일지사.
- 고영근·김완진·안병희·이병근·이익섭(1979), "국어학의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고영근·남기심(1985) = 남기심·고영근(1985)
- 고영근·이현희 교주(1986), 주시경, 국어문법, 탑출판사.
- 고창수(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국어학회.
- 교육부(1985/1991/1996), 고등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참고] 학교 문법[1985], 학교 문법[1991], 학교 문법[1996]으로 지칭.
- 구노[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The MIT Press.
- 구노[Kuno, S.] 외 편(1985),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Dep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 구현정(1989), “현대 국어의 조건될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어국문학회 편(1989), 국어국문학과 구미 이론, 지식산업사.
- 권재선(1988), 국어학 발전사, 우골탑.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권재일(1989), “조사의 성격과 그 생략 현상에 대한 기술 방법,”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권재일(1991), “한국어 접속문 연구사”, 김방한 편(1991).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권재일(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글리슨[Gleason, E.] (1955/1965),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김계곤(1996),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김광혜(1983), “계사론,” 난대 이응백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보진제.
- 김광혜(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광혜(1995), 어휘 연구의 실제와 응용, 집문당.
- 김광혜·김동식(1993), 국어 사전에서의 합성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김귀화(1988), “국어의 격 연구,” 한국어연구 14, 한국어연구회.
- 김귀화(1994), 국어의 격 연구, 한국문화사.
- 김규철(1980), “한자어 단어 형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41,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김기혁(1995), 국어 문법 연구 : 형태·통어론, 도서출판 박이정.
- 김동식(1980), 현대 국어 부정법의 연구, 국어연구 42,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김동식(1994), “복합 명사를 찾아서,” 국어학 24, 국어학회.
- 김두봉(1916), 조선말본, 새글집.
- 김민수 편(1993), 현대의 국어 연구사, 서광학술자료사.
- 김방한 편(1991), 언어학 연구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봉주(1984), 형태론, 한신문화사.
- 김석득(1962), “형태소의 변이 형태소(allomorph)로의 분석,” 한글 129, 한글학회.
- 김석득(1991),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 현상,” 국어연구 7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김승곤(1989), 우리말 토씨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승곤(1996), 현대 나라 말본:형태론, 도서출판 박이정.
- 김승곤 편(1996), 한국어 토씨와 씨끝의 연구사, 도서출판 박이정.

- 김영석(1984), "Aspect of Korean Morphology," University of Texas, Doctoral dissertation.
- 김영석 · 이상억(1991), *현대 형태론*, 학연사.
- 김영주(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김영희(1978), "겹주어론," *한글* 162, 한글학회. 김영희(1988) 재록.
- 김영희(1980), "정태적 상황과 겹주어 구문," *한글* 169, 한글학회.
- 김영희(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 김영희(1989), "이론 수용과 통사론의 전개," *국어학* 19: 국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 국어학회.
- 김용구(1989), *조선어 문법*, 사회과학출판사.
- 김정대(1996), "국어 통사론 연구 반세기," *광복 50주년 국학의 성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정은(1995), *국어 단어 형성법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김창섭(1981), "현대 국어의 복합 동사 연구," *국어연구* 4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김창섭(1983),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국어학* 12, 국어학회.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 김창섭(1992), "국어 형태론 연구의 흐름과 과제," *국어국문학* 40년, 집문당.
-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섭(1995), "광복 이후 국어 형태론의 성과와 전망," *광복 50년의 국학, 성과와 전망*(광복 50주년기념 전국국학자대회 발표초록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한곤(1982), "CAUSE as the Deep Semantic Source of So-called 'Causative' and 'Passive': With Special Reference to Metaphorical Interpretation of the -i Morpheme in Korean," *어학연구* 18:1, 서울대 어학연구소.
- 나이더[Nida, E.] (1949), *Morphology :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Second ed.,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 남기십(1968), *구조 언어학의 형태소 분석 방법론에 대하여*, 행정 이상헌선생 회갑기념논문집.
- 남기십(1986), "서술절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남기십(1989), "국어학의 구미 언어 이론 수용의 역사," *국어국문학회 편*(1989), *국어국문학* 과 구미 이론, 지식산업사.
- 남기십 · 고영근 편(1983), *현대 국어 문법*, 계명대학 출판부.
- 남기십 · 고영근(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남윤진(1996), *국어 조사의 문법적 지위*, *울산어문학* 11,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 람스테트[Ramstedt, G. J.] (1933), "The Nominal Postposition in Korean," MSFOu 67.
- 람스테트[Ramstedt, G. 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 래드포드[Radford, A.]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서정목 · 이광호 · 임홍빈 역(1983), 변형 문법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 리버[Lieber, R.] (1980),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MIT Doctoral dissertation.
- 마틴[Martin, S.] (1954), *Korean Morphophonemics*,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Baltimore.
- 매튜스[Mathews, P.] (1972), *Inflectional Morp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매튜스[Mathews, P.] (1991), *Morphology :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Word-Structure*, Seco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무이스켄[Muysken, P.] · 립스다이[van Riemsdijk, H.] 편(1986), *Features and Projections*, Foris Publications.
- 문양수(1996), "언어학 연구 50년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50년 (I): 총괄 · 인문 · 사회과학, 서울대학교.
- 민병수 · 이병근 외 10인(1985), *국어 국문학 연구사*, 우석.
- 마우어[Bauer, L.]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바이비[Bybee, J.]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 박갑용[Park, Kabyong] (1992), *Light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Japanese*, Thee Hak Sa.
- 박기덕(1974), 국어의 $S \rightarrow S^{2n}$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연구소.
- 박동근(1997), "국어의 통사적 파생 접사 설정 논의에 대하여," 한말연구회 여름연구회 논문집, 한말연구학회.
- 박병수(1973), "The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Linguistics* 100.
- 박병수(1982), "The Double Subject Construction Revisit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한신문화사.
- 박병수(1983), "문장 술어 의미론: 중주어 구문의 의미 고찰," 말 8, 연세대 한국어학당.
- 박병수(1988), "Sentential Predicates in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An Analysis of Korean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Korean Linguistics* 5.
- 박순함(1967),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Negation in Korean," Ph. D. dissertation,